

편집후기

River & Culture

낮의 길이가 꽤 길어졌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어떻게 하다 <하천과 문화> 편집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제 임무를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했으며 특별히 한 역할이 없어 편집 후기를 생략하려고 했습니다. 많이 기여하지 못한 점 때문에 책장 한편에 있는 <하천과 문화>를 볼 때 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다른 학회지와 차별되는 내용으로 좋은 예가 되고 있는 점에서 편집위원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하천과 문화>의 다양한 구성을 위해서 노력해주 정성원 박사님과 여러 편집위원님들께 감사말씀 전합니다.

권현한 | 편집위원

어찌자구 이렇게 또 눈이 올까요!! 뭘 미련이 있다고. 한 남자가 먼 길 떠나는 사람처럼 근심스럽게 하늘을 쳐다보다 한마디 툭 내뻐습니다. 매서운 이 겨울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봄은 오겠지요.

그래 기다려봅시다. 여태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잘 할 수 있었던 게 오직 기다리는 것 아니었습니까? 까짓것! 계속 기다려 보자구요.

그러다 보면 세월 지나고 그렇게 봄은 오지말래도 오겠지요. 그러면 그때 개나리, 진달래 피게 되고

<하천과 문화>를 읽어 주었던

누군가도

우리 얘기를 해주겠지요.

그러면 그걸로 족하합니다.

편집위원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상선 | 부위원장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편집위원회가 교체된다고 한다. 위원장님으로부터 모든 위원들의 아쉬운 마음을 편집후기를 받기로 했다는 메일을 보고 손을 짚아 보았다.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기를 2007년부터이니 벌써 6년이 넘는 것 같다. 그동안 두 분의 편집위원장님과 같이 활동해 왔다.

나는 “단체장이 바라본 하천” 칼럼의 원고를 섭외하는 일을 주로 맡아왔다. 1년에 4번.... 우선, 견제순으로 돌아가며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원고를 부탁할 만한 부서를 선정하여 무조건 전화를 돌린다. 운이 좋으면 몇 번의 통화로, 운이 나쁘면 몇 일이 걸려도 섭외가 어려울 때도 있다. 가장 운이 나쁜 경우는 원고요청을 수락하고 마감일 가까이 와서 “죄송합니다”라고 할 때다. 참 야속하다. 뺑구 뺑구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좋은 원고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칼럼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번 기회를 빌어 원고를 보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하천과 문화>는 다른 학회지와는 달리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읽을거리가 풍부하다. 이는 편집위원분들의 남다른 애정이 담겨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주는 참석치 못 했지만 가끔 참석해 보는 편집회의는 사뭇 진지하며, 발전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들이 쉼 없이 제안되는 활기찬 분위기를 띤다. 물론 회의 후 약간의 알코올을 곁들인 너무나 가족 같은 분위기의 식사가 이어진다. 회의는 참석 못 해도 늦게라도 나타나 맥주 한잔으로 정을 나누는 골수 편집위원 분들도 많으시다. 이런 분들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잡지가 될 것이라는 것에는 의문이 없다. <하천과 문화>의 계속된 발전을 기원하며....

김경탁 | 편집위원

<하천과 문화> 편집위원회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개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 편집위원회 일을 시작하면서, 열심히 해 보고자 했던 다짐에 비해 실제로 한 일들이 거의 없어 아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앞으로 물과 관련된 더 좋은 글과 소식들을 기대하면서, 편집위원회에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께, 그리고 그간 소중한 옥고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2013년 한 해 동안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소망드리며, 글을 단습니다.

김상욱 | 편집위원

이번 편집위원회를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시간이 제법 흘렀네요. 그동안 편집위원회를 통해 만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저에게는 소중한 자산이 될 듯합니다. 예전 시골에서 광에 감춰두고 시나브로 빼먹던 곳감처럼 말이죠. 이제 편집위원이 아닌 애독자로서 이러한 만남은 지속되겠지요. 그동안 좋은 글로 <하천과 문화>에 숨을 불어 넣어 주신 저자 분들과 <하천과 문화>라는 강에서 헤엄치며 놀 수 있도록 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 인사 올립니다.

김치영 | 편집위원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하천과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편집위원의 임기가 대나무의 마디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편집위원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편집위원은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마디의 지평을 열어 나갈 것입니다.

다양한 하천문화를 발굴하면서 <하천과 문화>는 한층 더 성장할 것입니다. <하천과 문화>가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명남재 | 간사

먼저 편집위원회 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편집위원님들의 지난 6년여에 걸친 헌신과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중한 원고를 쾌척해 주신 모든 저자님과, 항상 관심과 애정을 담아 협회지를 열독해 주시는 수많은 애독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협회지가 일선 대학(원)에서의 참고교재로까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국내 유일의 하천관련 주요매체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이와 같이 협회지를 아끼시는 모든 분들의 사랑과 열정, 봉사, 그리고 드높은 자긍심까지 함께 해 어우러진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천과 문화>가 하천분야의 발전을 위한 길라잡이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새롭게 구성될 차기 편집위원들께도 지속적이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태 | 편집위원

눈이 하얗게 세상을 감싸 안았다.

그 속에 하천의 하루는 반짝이는 눈동자를 뜨며 시작한다. 온 세상을 향해 나즈막히 속삭이듯 조용히 몸을 흔들며 삶의 시간을 관통한다.

누가 뭐래도 자신의 길을 가는 그 모양이 우직하기만 하다.

천성이 그러하겠지.

하천과 함께 길을 가는 <하천과 문화> 역시 그러했으면 한다.

바람에 휘둘리지도 폭우에 쓸리지도 않는 묵직함이 있으며 그 속에 친구처럼 같이 하는....

31호를 맞는 <하천과 문화>가 우직하게 인간과 공존하는 하천을 만들기 위한 작은 초석으로 오래도록 그 역할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학엽 | 편집위원

본 편집위원회의 마지막 <하천과 문화>가 편집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좋은 글을 작성해주신 분들 덕에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아쉬움은 남지만 아쉬움이 있어 또 다른 내일과 만남을 준비할 수 있는 이유와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이신재 | 편집위원

항상 옆에서 고요히 과거와 현재의 흔적을 담아 흘러가고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하천을 사람들에게 알려내고, 우리들의 하천과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했던 편집위원으로서의 활동을 마감합니다.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이 아쉬움은 '제구포신(除舊布新)'의 사자성어처럼 새로이 구성될 편집위원님들이 잘 채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창열 | 편집위원

지난해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2013년 1월 시원하게 출발한, 나로호처럼

계사년엔 좋은 기대에 설렌다.

정민주 | 편집위원



2008년 초가을 아니 늦여름쯤이었던가. 당시 열렸던 춘천물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나서 현 편집위원장이신 정성원 박사께서 한 마디 건넨 것이 인연이 되어 2010년 가을호부터 '하천경관의 보전과 활용'이란 주제로 글을 신게 되었다. 전혀 일면식도 없던 나에게 다소 이질적이거나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하천경관'에 대해 관심을 보여주시고 원고의 뉘까지 하셨던 것이다.

그 후부터 이번 2013년 겨울호까지 근 2년 넘게 연재해왔다 (딱 한 번 글을 쉬었다). 원고를 제때 송고하지 못하여 편집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해서든 글을 정리하고자 애를 쓴 것은 스스로도 기특(?)하다. 더욱이, 공교롭게도 하천경관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한 2010년부터 조경분야 신문에 '경관'에 관하여 현재까지 연재해오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대개 하천경관보다 하천환경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는다. 그것은 공업화와 산업화, 그리고 인구증가 등으로 인해 자연적인 요소를 '개발과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마음대로 제어하는 것이 그다지 이상하다거나 나쁜 일이 아니었다.

50대에 가까워진 나에겐, 가재를 잡아 아궁이에서 구워 사촌과 함께 먹던 기억, 개천에서 떡 감던 기억과 함께 동네 개천이 어느 새 도강(일부러 당시 사용하던 표현을 썼다.)을 놓

고 개천 양옆은 시멘트로 직강화하더니 얼마 후 그 위를 아스팔트로 덮어버리는 과정을 본 어릴 적 기억들이 머릿속에 흔재한다.

우리가 흔히 쓰는 경치, 풍경이란 익숙한 말 대신에 '경관'이라는 딱딱한 말로 표현되는 분야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일하고 컨설팅을 하기까지 약 20년이 조금 안되는 시간이 걸렸다.

여전히 궁금한 것 투성이면서도 질리지 않는 것은, 그 '경치', 그 '풍경'이 사진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속에서 늘 다른 모습,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하천과 문화>를 통해 '하천경관'이라는 주제로 그 모습과 느낌을 조금이나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내게 주어진 몇 안되는 행운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하천경관'에 대해 그리고 '하천경관'과 관련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천과 문화>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정리해나가고자 한다. 다시 한 번 <하천과 문화>에 감사를 드리고, 편집위원회 위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하천과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으니.

오민근 | 편집위원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해 주셨는데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한 것 같아 죄송스런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하천관리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많은 전문가분들을 알게 되고 그 노력을 더욱 잘 알게 된 것 같아 기쁜 마음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천과 문화>가 더욱 발전하기를 염원하고 향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호 | 편집위원

이번 편집위원회 활동은 개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기간이였습니다.
회사 변동, 교통사고, 건강 이상, 폭우에 의한 차량침수 등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련의 사고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무사히 해결을 하여 현재 편안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장소에서도 열심히 할 것을 기약하며 파이팅을 외칩니다.

이용수 | 간사

글은 내맘속 풍경을 더 선명하게 그려주기도 하였고
내맘속 생각을 더 단단하게
때로는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뭉쳐주기도 하였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가끔은 내가 이런 멋진 글을 쓰다니
하며 스스로 대견해하기도 하고
내가 본 풍경의 감동이 글로 잘 써지지 않아 괴롭기도 한
지난 날들이었다.
<하천과 문화>를 통해 내가 몰랐던 하천의 여러 단면들을
만난건
내 인생의 축복이었다.
2013년 멋진 변화와 한결같음을 기대하며
<하천과 문화> 파이팅!
그리고 편집위원님들, 관계자 분들, 독자분들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꾸벅^^

이자영 | 편집위원

〈하천과 문화〉, 계간으로 나오는 우리 책을 만들기 위해
본인들의 시간과 주머니를 털어가며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동료 편집위원님들, 참으로 반갑고 감사하였습니다.
저로서는 고정 칼럼필자이면서
또한 대학에서 생태환경학을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에서
이 책을 대학 교재로 활용하여 왔기에
지난 세월의 소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은 하천을 따라 바다로 흘러갑니다.
더 큰 물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도도한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간 우리가 쌓아온 정성이
독자들에게 한 방울 지식과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보고 싶을 겁니다.
동고동락 동료 편집위원님들
올 봄에 저 하천변에서 곡차 한잔 나누면서
이 때를 회고하십시오.

이학영 | 편집위원

2008년 봄, 〈하천과 문화〉를 만났습니다. 수많은 분들의 소
중한 원고를 보며 하천의 장구한 역사와 다양한 문화를 배
웠습니다. 제겐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었기에, 함께 해서 즐
거웠습니다.

그간 소중한 원고를 주신 분들과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 해주신 편집위원분들
과 사무국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한 시간들,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언제나 한결 같은 물의 마음을 헤아리며, 다시 일상으로 돌
아갑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정성원 | 편집위원장

〈하천과 문화〉를 통해 하천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전문가와 함께 하나의 목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같이
고민한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
꼭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동 | 편집위원

하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생각하며
일반인들에게 하천을 보다 친근하게 소개하는 〈하천과 문화〉
의 편집위원회 활동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계
간지이다 보니 매호 출간과 함께 계절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
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맡았던 “하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부분은 지자체의 공무원, 학계, 산업계의 전문
가는 물론이고 향토사학자와 문인까지 대거 참여했던 종합
프로젝트였습니다.

수원천, 경안천, 복하천, 유구천, 한강하구, 남강, 순천만 등
전국의 다양한 하천을 두루 살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
고, 제 스스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어느 하천을 불문하고, 하천에는 유구한 역사가 있었고 하천
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잘 알지 못했던
지방의 역사를 하천과 함께 돌아보니 생생함이 더 강하게 다
가왔습니다. 결국 하천은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과 아름다움
을 전해주는 공간이었고, 그래서 더 역동적으로 흘러야 한다
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전국적으로 하천살리기 운동이 매
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하천이 되
살아나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접할 때 수자원 전문가로
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하천을 사랑하는 분들이 보내주신 글은 그
속에 담긴 애정만큼 소중한 기록이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숭한 원고 독촉에도 불구하고 정성스런 옥고
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일문 | 편집위원

2012년은 사회 초년생의 마음으로 돌아가 의욕적으로 시작
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세상사 그렇듯 지나친 의욕이
많은 것을 소홀하게 한 거 같습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위해 가까이에 있던 소중한 인연들을 잠시
잊고 살았습니다.

편집회의 한번 참석하지 못했지만, 지면으로나마 유일하게
소중한 인연들과 소통하는 공간은 하천협회지 아니었나 싶
습니다.

끝으로, 〈하천과 문화〉를 사랑해 주신 독자분들께 감사드리
고 〈하천과 문화〉 편집위원으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
신 편집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황석환 | 편집위원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고, 많은 눈이 내리네요. 댐 저수상황도 좋아서 ‘올 봄 가뭄으로 고생할 일은 없겠구나’ 하면서도, ‘이번 여름엔 또 얼마나 비가 올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편집회의에선 볼 순 없겠지만, 한강홍수통제소의 ‘수자원 현황 및 전망’은 협회지에 계속 게재가 되겠지요. 기회가 되면 새로운 분들도 볼 수 있겠구요. 다들 즐거웠습니다.

차준호 | 편집위원

물이라는 주제로 모이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하천과 문화’ 사이에서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이자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회와 도전을 편집위원으로서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선희 | 편집위원

〈하천과 문화〉를 통해 하천과 관련된 법률·행정 지식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좋았습니다. 딱딱한 “알아두면 유익한 코너”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일입니다. 편집회의 때마다 젊은 후배님들을 보는 즐거움도 좋았습니다. 감사드리며, 한국하천협회와 〈하천과 문화〉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허철 | 편집위원



안녕하십니까? 2008년 봄부터 하천과 문화의 삽화를 제작해 온 일러스트레이터 김도연입니다. 그동안 〈하천과 문화〉의 동화 작가님들과 발맞추어 삽화를 그리면서 여러분들을 뵈었습니다. 한국적이면서도 포근한 색채의 작품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항상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 언제나 동화 작가님들과 제작 및 편집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 계사년은 흑사(黑巳)의 해라고 합니다. 금전을 상징하는 동물과 색이 모였으니 앞으로는 모든 가정이 풍요롭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 | 일러스트레이터

